

### “바람[希望]의 제주, 바람[風]난 소피아(Sophia)”



『제주소피아』 발간이 열네 번째다. 이제는 연말연시에 연구실을 찾아오는 편집장을 대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열한 번째 발간 때 “인연”이라는 주제를 함께 고민했던 김민규(10학번)가 2014학년도 철학과 학생회장이 되어 편집장과 함께 연구실을 찾아왔다. 늘 그랬듯이 주제를 선정하고 편집 체계를 잡으면서 2014학년도 학생회 운영 계획도 들었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우선은 2014학년도 학생회가 알차게 운영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부터 해두어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네 번째 『제주소피아』는 작년 한 해를 뜨겁게 살았던 2013학년도 학생회의 기록이니만큼 우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빼 놓을 수가 없다. 그 두 사람은 2013학년도 철학과 학생회 회장인 오충용(09학번)과 부회장인 김은혜(10학번)이다. 마초(macho)적 “매력이 철철” 넘치는듯하지만 비움이 섞였음에도 경쾌한 “교수님, 충용이 왔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들으면

# 제주소피아 열네 번째 이야기 ||

## □ 세 번째 바람 — 인연과 추억

---

- 2013 매력철철 철학과 회장 & 부회장 인사말 • 116
- 2014 철두철미 철학과 회장 & 부회장 인사말 • 119
- 2013 매력철철이들이 함께 했던 시간들 • 121

## □ 끝마치며 | 편집후기

---

- 편집부장의 글 • 130

금세 기분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가 오충용이다. 지난해에 힘든 일이 많았지만 반전 매력으로 학과를 잘 이끌어주었다. 학생회 일에 바쁘면서도 시청 주변 커피숍에서 전공서적을 펴 놓고 공부삼매경에 빠지는 일이 많다는 부회장인 김은혜도 그런 점에서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이다.

2013학년도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지난 해 미네르바 향연을 준비하느라 1학기말에 찾아왔다. 그때는 한국연구재단의 2013 인문학성과확산사업인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던 때였다. 사업 주제가 “희망의 인문학”이었기 때문에 “바람[希望]의 제주, 바람[風]난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네르바 향연의 주제도 같은 방향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철학과 학생회 정기회의를 거쳐 “청춘바람”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이번 열네 번째 『제주소피아』의 주제도 “바람”이 되었다.

제주가 고향만큼이나 푸근하게 느껴지는 때는 제주말[濟州語]을 듣고도 전혀 낯설지 않을뿐더러 무심결에 제주말을 하게 될 때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바람’이라는 말보다는 ‘바람’이라는 말이 더 친근하게 들린다. 지난해 사업계획서를 쓰는 두어 달을 이 ‘바람’이라는 말에 푹 빠져 살았던 덕분이다. 물론 ‘바람’은 희망이 아닌 바람[風]을 뜻하고, 청춘바람이라고 할 때는 “희망과 바람[風]”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뜻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제주말 이야기가 나왔으니 최근 어느 분으로부터 “제주문화라고 하는 것이 기껏 술 한 잔에 느영나영 부르는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본래 풍성한 제주문화를 제대로 살려내자는 취지의 말씀이었지만, 웬지 석주명선생이 도민의 취미를 “해변에서 「자리화」에 소주나 먹으면 최상의 행복이라 하겠다(『제주도수필』).”라고 한 말이 떠올라서 심기가 불편했다. 실제로 술자리 건배사로 ‘사랑가’ 한 자락을 불러 젖힌 뒤에 도민들에게 화답가로 꼭 들려달라고 하는 민요가 ‘느영나영’이다.

## ■ 학과장님 말씀

느영나영 두리둥실 놀구요  
낮이낮이나 밤이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 운다

서양 전통에서 인문(humanitas)이란 ‘인간다움’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인문학이란 인간과 인간 삶의 흔적인 문화에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전통에서 인문(人文)이란 ‘예교문화(禮敎文化)’를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그려내는 이른바 ‘삶의 현상’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자어 ‘음식남녀(飲食男女)’는 사실상 인문학의 요체이다. 그리고 ‘느영나영’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3절의 ‘백록담 올라갈 때 누이동생하더니 한라산 올라가니 신랑각시 된다.’가 전혀 외설스럽지 않은 이유도 ‘저녁에 우는 새’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문학의 본질적 가치가 실천, 곧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고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바람’, 곧 희망이다. 그 자신이 신이 인간에게 보낸 선물인 판도라(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제우스가 준 상자 피토스(pithos)를 열었을 때 튀어나온 온갖 재앙들 밑바닥에 있던 것이 희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판도라의 상자와 그 밑바닥에 있다는 희망은 그 자체로 부조리(absurde)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서 희망할 이유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더 이상 이를 것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식의 위로는 본래 가짜약이었을뿐더러, 플라시보(placebo; 가짜약) 효과의 유효기간도 끝났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 인문학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공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답시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상처를 툭툭 건드리고 헤집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사실상 인문학의 숭고함과는 거리가 멀다. 기껏해야 지적 유희나 악취미에 불과하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인문학 난독증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부조리함은 분명히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부조리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죄이건, 신의 노여움이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노동이라는 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조리하다. 하지만 만일 인간의 이런 불행한 상황을 즐기는 신이 있다면, 이 신을 인간의 세계에서 추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까뮈가 오이디푸스의 입을 빌려 말했듯이 ‘부조리함’과 ‘좋다(bien)’라는 단어를 함께 쓰는 것이다. 물론 근대의 기획이 실패한 이유는 “신은 죽었다(Gott ist tot)”라는 선언을 “인간이야말로 초인(Übermensch)이 될 수 있다.”는 선언과 동일시한 데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여기(hic et nunc)에서 그동안 외면했던 존재자(das Seiende)를 세계-내-존재(In-der-Welt Sein)와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배려하고(besorgen)’, ‘마음을 쓰며(fursorgen)’, ‘염려하는(sorgen)’는 ‘함께 있는 세계(Mitwelt)’에 대해 존재론적, 인식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조리한 인간 존재의 부조리한 희망은 이렇게 부조리함을 넘어설 수 있다. ‘브름’이 많이 부는 제주에서 ‘브름’을 타고 유배 온 육지사람들은 오히려 그 ‘브름’ 때문에 육지로 돌아갈 희망을 꿈꿀 수 있고, ‘브름’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왔던 도민들은 오히려 그 ‘브름’ 때문에 풍성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2014년을 준비하는 때이다. 우리 철

## ■ 학과장님 말씀

학과는 학과 설치 이후 선배교수님들께서 ‘철학의 대중화’를 한 번도 손 놓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학교 안팎에서 꾸준히 철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했던 것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때도 많았고, 그래서 아직도 희망할 것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희망할 것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희망의 전제가 된다는 역설적인 관점에서, 2014년 철학과가 ‘바람[風]난 소피아(Sophia)’의 모습을 실천해 보이기를 희망한다.

2014.2.14.

제주대학교 철학과 학과장 김치완